

새로운 UCCN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방법 - 국가 조정 및 새로운 UCCN 규율: 창의도시 파브리아노의 두 가지 경험*

비토리오 살모니**

서론

종이와 제조업의 도시이자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응용기계 산업지역 중 하나인 파브리아노는 2013년부터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UCCN)의 회원국이 되었다. 몇 년 전, 이 도시는 경제적, 사회적, 도시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맞물려 심각한 생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파브리아노는 토리노, 제노바, 그리고 몇몇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과 함께 산업 경제에서 다른 형태, 다른 조직으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이 변화 이후, 그 도시는 그 새로운 발전 패턴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으로 창의성과 문화에 집중하였다.

1. 창조도시 국가 조정그룹

2016년 스웨덴의 오스테르선드에서 연례회의가 열리기 직전 파브리아노에서 5개 도시의 시장들에 의해 서명됐던 의정서에 의거, 알바, 베르가모, 비엘라, 볼로냐, 카라라, 코모, 파브리아노, 밀라노, 모데나, 팔마, 페사로, 로마 그리고 터린 등 13개 이탈리아의 창의도시들은 국가 조정 그룹을 설립하였다. 초기 단계에는 볼로냐가 조정 그룹을 이끌 계획이었다.

파브리아노는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과 함께 “창의적인 이태리: La Citta Ideale - 이상적인 도시”라는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2019년 UCCN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정 그룹이 추구하고자 하는 창의도시의 비전은 UCCN 미션 언명에 기술되어 있으며, 창의성 그 자체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전략적인 역할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문화와 혁신은 경제, 사회, 영토 발전의 핵심 도구로 간주된다. 국가 조정 그룹이 설정한 목표들은 UCCN내에서의 이탈리아UCCN 도시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이탈리아 정부, 유네스코 이탈리아 국가위원회, 이탈리아의 유네스코 상임 대표단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UCCN 내 여러 클러스터에서 생기는 기회들과 계획들을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조정 그룹은 회원 도시들 간의 협력 계획뿐만 아니라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주제의 네트워크들을 통해 우리의 유산과 창의성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들을 창의도시들과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이트 들에서 계획할 것을 제안한다. 조정 그룹은 이탈리아 정부의 해비테트 III 를 위한 프로젝트들과 연결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문화” 연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의제 2030 을 지원한다

2. 연구

ISTAO (아드리아노 올리베티 연구소), INU (이탈리아 국립 도시 계획 연구소), Fondazione Aristide Merioni, 많은 대학들, 폴리테크닉 스쿨 UNIPA, 국제 건축 전시회는 모두 파브리아노와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에 의해 시작된 연구 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지난 두 에디션, 건축 2021 과 예술 2022에서의 이탈리아 스탠드(Italian Stand)는 “공유된 예술작품으로서 도시의 관념”에서 비롯된 “공동체의 서비스를 위한 예술과 건축의 비전”에 그 중점을 두었다. 머지않은 미래에 건축가들은 사회적 포

용, 참여, 보건, 통합, 합법성의 원칙에 부응하는 건축물을 만들자는 미션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외의 개념은 다른 가치를 가정한다. 그것은 도시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한 장소에 산다는 관념이 가지는 문화적 유연성과 관련된 사회적, 정신적 가치를 가질 것이다. 선진 세계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곳은 미래에 그곳에서 거주하게 될 새로운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새로운 지역은 대규모 이주 움직임의 결과이며, 기존 도시 중심지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 이 지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 새로운 언어,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 동시에, "점증적 도시주의"는 도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기원이 되는 도시들을 통합했다.

따라서, "공동의 목표를 위한 설계"라는 이상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국제 건축 전시회와 중국 선천에서 열린 바이시티 비엔날레 (2015 UABB) 에서 보았던 것처럼 글로벌한 수준에서 긴급하고 필수적인 과제이다.

3. 주제

우리는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적 및 목표' 중 2개의 목표를 선정하였으며, 이탈리아 창의 도시들의 기여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 목표 8: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 일자리의 촉진

이탈리아 내 영토와 도시들의 새롭고 중요한 경제 발전 노선은 전통 제조업 분야와 문화 및 창의적 기업체들간 협력의 결과이다. 이탈리아의 산업화는 잘 알려져 있듯이 주로 제조업 기

업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히 마르케(Marche) 지역은 이탈리아 최초이자,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러한 유형의 기업 밀도가 높아진 지역 중 하나였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의 진화는 지역 생산 업계에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제조업의 대표적인 구조적 약점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이 업계는 본질적으로 “성숙한” 섹터들에서 작동하는, 연구 개발 등에 그다지 투자하지 않는 소규모의, 또는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생산 사슬에서 다른 업체들과 사업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나마 맺고 있는 몇 안되는 사업 관계는 엄격한 하청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거친 기업들이다. 이 전환은 제품, 프로세스 및 조직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 개발 경로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이 기업들은 또한 품질, 혁신 및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ICT가 제안하는 큰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 지식을 홍보하고 환경과 생산 현장을 보호한다. 발전된 기술과 개발자들 덕분에, 일자리들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인 마을들로 되돌아왔다. 따라서, 산업과 창의성의 관계, 제조업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창의적 동력을 향한 혁신과 문화의 발전은 어떤 기업의 지원과 후원에 의해서만 고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유·무형의 문화 유산과 지역의 정체성에 연결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의해서도 고무된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도입한 기업들은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그들의 디자인 콘텐츠에, 강력하고 인식가능한 브랜드 이름에, 그리고 가치, 라이프스타일, 역사 및 전통을 제품들과 통합하는 능력을 발휘해 왔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기업들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모든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Made in Italy” 브랜드화에 이와 같은 모든 경쟁 요소들을 재적용 할 수 있었고, 이는 기업가적 부분의 성공, 즉 경제적 부분의 성공이 공동체의 사회적 진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이 주제는 유네스코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주요 원칙들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2) 목표 11: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포괄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는 탈 산업화 도시에서 창의도시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특징짓는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브리야노는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사례이며, 또 2016년 해비타트 III 회의에 대비하여 혁신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문화"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례가 된다.

이것은 또 "IncrediBOL"을 진행한 창의도시 볼로냐의 사례이기도 하다. "IncrediBOL"은 2010년에 시작된 지역 차원의 시범 사업으로, 지역의 창의 및 문화 계획을 위해 자원과 장소를 무료로 제공받는 공공 및 민간 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와 지역 창의산업들의 개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창의산업들을 개발 및 도시 재생과 지역 홍보를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목표 또한 이룰 수 있었다.

또한 볼로냐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율적인 시민들의 계획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된 "도시 공공재의 보호와 재생을 위한 도시와 시민의 협력에 관한 지침"을 따르는 협력도시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에 의거하여, 시민들과 행정당국은 아이디어와 목표를 공유하고, 개인과 집단의 복지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도시의, 무형 또는 유형의, 그리고 디지털 형태의 공공재들의 재생을 위한 실천을 함께 모색한다. 현재까지 220건의 이런 형태의 실천이 있었다.

이탈리아의 창의도시들 내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대응적인 계획만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데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

많은 창의 도시들은 이미 순수하게 지식 노동자들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였던 1단계에서, 마을이 창의성, 경제발전,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협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단

제로의 큰 도약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창의경제가 도시의 중요한 요소들, 정체성과 인적 자본, 그리고 새로운 제조 및 훈련 시설들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재생에 있어 큰 주체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 fab시티”와 “창의도시 3.0” 같은 정의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이 도시들은 3 Cs(Culture문화, Communication소통, Cooperation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위기의 시나리오와 과도기 도시 정책의 변화는 우리가 새로운 도시와 새롭고 창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설계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도시가 새로운 도시 정책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재생 에너지와 교통 수단을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공공 장소의 사용 방식을 바꾸고,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중심지가 아닌, 다시 한번 제조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들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의사결정권자들과 활동적인 시민들 사이의, 디지털과 물리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동맹을 장려하는 도시들이 되고자 한다.